



잡지를 읽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화술만 뛰어난 게 아니다. 어떤 소재로 이야기해도 대화가 될 만큼 상식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상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잡지를 꾸준히 읽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3. **잡학을 익히기 좋다**
잡지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태도는 사람을 고리타분하게 만든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해서 드라마 하나 안 보고 배우 얼굴 하나도 모르는 건 너무 슬막하지 않나? 여유가 필요하다. 쓸모없어 보이는 지식이라도 써먹을 일이 다 있다. 잡지는 그런 부분을 잘 채워준다.

4. **정보 습득 시간을 아낀다**
이건 정말 수확이 크다. 요새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 뭘 봐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 잡지는 이런 면에서 시간을 확 아껴준다. 인터넷 뉴스를 온종일 볼 시간에 잡지 한두권 읽는 게 정보의 밀도나 범위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 시간이 돈인 세상이다. 잡지를 읽는 건 상식을 키우는 데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다. 독서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잡지는 가볍게 대충 읽어도 된다. 하지만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경쟁력이 생긴다.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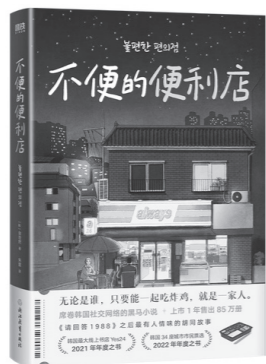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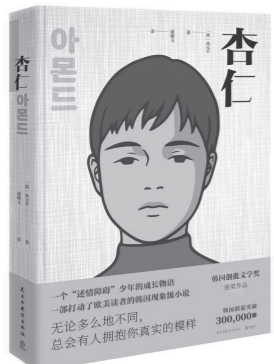
1. 트렌드(动态)를 읽기 편하다

잡지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신문 뉴스보다는 못하지만 비교적 가장 최신 이슈를 신문 뉴스보다 깊게 다룬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 주기에 흐름을 잡기가 좋다. 시사나 경제 관련 잡지 한두권, 헬스와 문화, 패션 잡지 한권 정도 보면 좋다.

2. 다양한 관점을 배운다

잡지엔 실력있는 칼럼니스트들의 글이 정기적으로 실린다. 뛰어난 칼럼니스트의 글을 꾸준히 읽으면 세상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잡지는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중국 독자들이 즐기는 한국 소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독자들도 쉽게 한국 문화에 공감할 수 있다. 비슷한 문화도 있지만 다른 문화는 소설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독자들이 즐기는 한국 소설들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100만부 베스트셀러 《아몬드》(杏仁)

중국에서 유명한 한국 소설은 첫 번째로 《아몬드》이다. 《아몬드》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유명한 책으로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추천하는 책이다. 《아몬드》는 한국에서 1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며 아마존에서 베스트북으로 선정되고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문학을 널리 알린 소설이다. 《아몬드》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나 감정을 느낄 수 없으나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주인공 선유체의 성장기 내용을 다루고 있다. 뇌의 측두엽 내측에 있는 신경핵의 집합체인 편도체의 모양이 아몬드를 닮아 아몬드라고 불린다. 제목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기능 편도체의 신체적인 부위를 뜻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비유했다.

《아몬드》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신선하고 흥미롭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독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 종합

힐링소설의 대표작 《불편한 편의점》(不便的便利店)

로속인 출신 편의점 직원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불편한 편의점》은 김호준작가의 장편 소설이며 루적 4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이다. 또한 2021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에서 종합베스트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에서는 2021년 중국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당당왕(当当网)에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잡지인 《인민문학》(人民文学)에도 소개됐다.

서울역에서 로속자 생활을 하던 주인공 '독고'가 편의점 사장 '염녀사'의 도움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독고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며 성장한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이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령감을 주며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편한 편의점에서 삶은 관계이자 소통이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불편한 편의점》 역시 중국과 한국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준다. 소설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집구석에 방치해둔 책 있으면 바꿔서 보세요

4월 20일 오전 9시 연변도서관에서 '도서교환 장날' 경험 가능

4일, 연변도서관은 공식 위탁계정을 통해 '열독신시대 서향윤연변'(悦读新时代 书香润延边) 전민열독시범 보급 프로젝트 제2시즌 '도서교환 장날'(换书大集) 활동의 도서 모집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연변도서관의 '도서교환 장날' 활동은 광범한 시민들이 독서를 사랑하고 책을 공유할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공공도서관이 전민열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 '도서교환 장날' 활동을 기초로 독자들이 수중에 있는 장서를 활성화하여 좋은 책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연변인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려는 것이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은 보지 않고 구석에 방치해둔 책들을 갖고 나와 도서관에서 사전

등록을 마친 후 도서교환을 할 수 있다.

교환에 참여하는 도서는 반드시 2017년 이후 국내 정규적인 출판사에서 출판된, 내용이 건전하고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책이면 된다. 교과서나 교육보도용 서적이거나 잡지들은 이번 교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번 활동을 위해 연변도서관에서는 '도서교환 장날' 봉사 플랫폼을 설립하고 4월 20일까지 시민들이 갖고 오는 도서에 대해 검사와 선별을 거친 후 매 책당 한장의 도서교환권을 내주게 된다. 이 교환권으로 오는 4월 20일 오전 9시에 연변도서관 1층에 마련된 도서교환 장소에서 시민들은 맘에 드는 책을 교환할 수 있다.

이번 '도서교환 장날' 자문전화는 0433-2765734, 2765735이다.

/ 안상근기자



[독서가이드]

어린이들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책



우리 나라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 역시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

문화는 한 민족의 낮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책 세트를 소개해드리려 한다.

바로 《미덕중국 창작 아동문학총서》인데 현재까지 료녕민족출판사에서 총 10권이 출판되었다.

“여러 민족은 문화면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며 서로 참고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총서는 56개 민족의 미덕이야기를 담았으며 각 민족이 숭상하는 가치관과 전통적인 미덕을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다.

매권당 하나의 민족이야기가 담겨져있고 이야기는 또 전통이야기와 창작이야기로 나뉜다. 전통이야기는 그 민족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창작이야기는 현대의 실정에 맞게 창작된 이야기들이다.

례를 들어 조선족편은 《흥부전》, 《토끼전》, 《삼태성》, 《금도끼 은도끼》, 《팔죽할머니》, 《우렁이 각시》, 《보배항아리》, 《인심아씨》 등 8편

의 전통이야기들과 《전설 속의 버섯집》, 《아빠의 토끼인형》, 《누가 그들의 옷을 훔쳐 입었을까》, 《나는 꼬마안내원 옹크》, 《노래하는 진달래》 등 5편의 창작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책들마다 그 민족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알심들어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그 민족의 전통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소학교 중, 고학년부터 구독이 가능하고 단단한 하드커버에 표지가 돌려져 있어 튼튼하고 소장 가치가 있다.

현재는 조선족, 한족, 묘족, 이족, 몽골족 등 10개 민족이야기들을 담은 10권이 출판되었고 금후 계속하여 다른 민족의 이야기들도 출판될 전망이다.

이렇게 56개 민족의 56권의 책을 읽노라면 어린이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민족적 자부심이 강해지는것을 느

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어로도 출판이 되어있는 바 조선어와 한어를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노라면 두가지 언어 모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기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타민족 문화를 존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일독을 권장한다.”

/ 우리문화채방 '진달래채방' 리승화 제공



우리문화채방 '진달래채방' 주인장 위챗을 추가하시면 더 많은 책을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혁 독서칼럼집 《옥탑방, 책 읽어주는 남자》 출간기념회 소집



김혁 독서칼럼집 《옥탑방, 책 읽어주는 남자》(상, 하권) 출간기념회가 3월 3일 연길시신화서점에서 펼쳐졌다.

민족의 독서 부흥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각계가 폭넓게 동참한 규모있는 행사로 치러진 이번 출간기념회는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와 ‘통두레’독서사의 공동 주최, 연길시신화서점의 주관으로 펼쳐졌다. 출간기념회는 축하공연, 작가 소개 및 저서에 대한 평문, 저서의 중요 장절 낭독, 저자의 소감 발표, 서예작품 증정, 래빈 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칼럼집의 평문을 맡은 연변대학 리광일교수는 “칼럼집은 고금중의 명저들로부터 당대의 인터넷 문학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단순히 책의 줄거리만 풀이한 것이 아니라 창작담, 대담, 취재록 등 여러 장르로 독자들에게 립체적인 열독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말로 된 독서 입문서가 없어서 문학 조인과 그에 걸맞는 책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작가의 알찬 이 독서칼럼집이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했다.

원로작가 최삼룡은 축하발언에서 “김혁작가는 남보다 불운한 인생을 헤쳐오는 와중에도 치열한 문학정신으

로 일관해오면서 꾸준한 독서와 왕성한 창작으로 문단의 큰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말했다.

연변교육출판사 도서간행물센터 주임 최영애는 “독서칼럼집은 연박한 지식, 예리한 통찰력, 화려한 필치로 국내외 우수한 작가, 철학자, 예술가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을 눈에 보는 듯이 그려냈는데 책을 읽는 내내 누군가 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읊어주는 듯 편안함과 향수를 느끼게 되었고 백권의 책, 몇십편의 영화를 단숨에 섭렵한 듯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옥탑방, 책 읽어주는 남자》의 책임 편집을 맡았던 연변교육출판사의 유린식은 책의 출판 경위에 대해 말하면서 “이 칼럼집은 조선어 출판물 시장

에서는 선물같은 존재이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늘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에 자신있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연길시신화서점 리창혁 경리는 “김혁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조선족 독자들에게 더욱 큰 독서의 행복감을 주리라 믿는다. 현재 신화서점에서는 2,600여종의 우리말 도서가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점외에 위챗, 토우보, 모이자 등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 계신 조선족 독자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는데 조선족문학의 발전에 힘을 보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책의 저자인 김혁소설가는 “여러가지 장르를 다루어왔지만 이번의 책은 나름 의미가 컸다. 작가, 언론인이자 독서인으로서 울퉁이 살아온 나의 창

작 생애를 넘나들 순으로 집대성해놓은 듯한 책이기 때문이었다.”고 집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이나 위챗의 홍수 속에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일수록 독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책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 건너는 징검다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할 때, 어쩌면 온 민족을 통한 책 읽기는 우리 민족이 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완전한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듯 독서에 빠져드는 그런 풍조를 기대해 본다.”고 력설했다.

원로작가, 문인, 출판사, 서점가의 령도들과 문학도, 대학가의 사생 5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 안상근기자

